

대산청, 봄철 해빙기 대비 항만·어항시설물,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

대산지방해양수산청(청장 황성오)은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약 1개월간 충청지역 항만·어항 시설물 122개소와 건설현장 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항만시설물(대산항 국가부두 등) 20개소, 국가어항(삼길포항 등) 시설물 102개소

** 항만 및 국가어항건설현장 5개소(대산항, 남당항, 무창포항, 장고항 등)

이번 점검에서는 봄철 해빙기 일어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나, 침하, 구조물 변형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.

점검 후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, 안전에 취약한 시설은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·보강 조치할 예정이다.

대산해수청 관계자는 “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.”라고 밝혔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| 책임자 | 과 장 | 전재형 (041-660-7690) |
| | | 담당자 | 주무관 | 차길재 (041-660-7696) |